

製品값 全世界的으로 급등



食品價格이 지금 全世界에서 놀랄만큼 급등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노집에서 北美여러도시의 슈퍼마켓에 이르기 까지 각종 食品값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품류를 생산하는 大企業들이 심한 經營압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政府의 저물가정책에 호응하므로써 製品價格이 비교적 安定상태를 지속하고 있으나 「이탈리아」는 식량부족으로 인한 糧暴動때문에 위기에 직면했으며 특히 포도주값은 1년동안에 32.6% 뛰어 올랐다.

프랑스에서도 최근 肉類값이 지난 여름에 비해 10%가 올랐으며 과일 및 채소값은 18%가 높아졌다.

전통적으로 쇠고기의 나라로 이름난 「아르헨티나」는 無肉기간을 설정하여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파는것을 週期的으로 금하고 있다.

근래에와서 가장 심각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나라는 越南으로서 고기등 각종 식품류가격이 1년전에 비해 무려 1백 40%나 뛰었다.

이같은 가격급등상은 비단 西方國家나 開發途上國 문제만은 아니다, 소련, 東獨,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등 共產國家에서 나온 보도들 역시 끊임없이 식량부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암시 해준다.

이들 共產國家들은 식품가격등귀, 파업등에 자극받아 食糧輸入에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다.

이렇듯 世界的으로 食品값이 치솟고 있는 것은 크게 세가지 요인을 지적할수 있다.

가장 먼저 지난 2~3년동안 蘇聯·中共 및 印度大陸에 흉년이 들어 그들이 前例없이 엄청난 量의 食糧을 사들였기 때문이다.

또하나는 西方國家들의 通貨不安이 국제식량거래의 가격 「인플레이션율」 조장한데다 2년간에 걸친 달러貨 價値의 폭락이 美國의 輸入구 메력을 저하시켰다. 마지막으로는 全世界의 生活水準이 全般的으로 上昇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많은 食品을 요구하게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世界的인 原料不足현상이 우리나라에도 파급, 4,5年前부터 계속 成長街道를 달려온 食品工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